

열린우리당 집행부 13명과 만찬

- 인사말 -

반갑습니다.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축하드립니다. 우리 원내대표, 정책의장, 두 분도 축하드리지만, 당이 이제 또 일부 체제를 새롭게 정비해서 그렇게 새로 출발하게 된 것은 당 전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.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해서도 전체 축하 말씀드립니다.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지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제 스스로의 지지도에 대해서 대단히 좀 둔감한 편입니다. 긴 승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지지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

그러나 지지도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. 당원들의 사기입니다. 당에서 제 지지도가 떨어지면 당도 불안하고 또 사기도 떨어지고 그 점은 신경이 쓰입니다. 그래서 가끔 ‘내가 당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가.’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대통령이 잘해서 당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어찌는지 걱정입니다. 장기적으로는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신을 가지고 있지만, 그러나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간사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때마다 원성도 있을 수 있고, 또 손발 맞추다가도 손발 맞추기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.

저는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당원들에게 이

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대통령, 한때 한때의 정책에 호불호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당과의 관계에서 정책적인 조율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연입니다. 그냥 시끄러워도 둘이 만나면 잘 되는 집안이 있고, 그냥 손발이 맞는 것 같은데 둘이서 만나면 사업이 안 되고 자꾸만 안 되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 다 잘 되듯이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도 당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

당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한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다함께 이것은 인연이 딱 들어맞는 그런 관계라서, 천생연분이라서 좋으나 꺾으나 그냥 숙명으로 같이 가고, 가다보면 잘 될 운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운수가 아니냐고 생각하고, 저는 그 운수가 우리의 운수고 우리 당의 운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수가 잘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가는 그런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 섭섭할 때도 섭섭하다 하지 마시고 같이 꾸준히 갑시다. 지금 열린 우리당 그리고 당과 저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어쩐지 어떤 분들은 아직도 생소해 하시고 불편해 하십니다.

나는 이 새 질서에 대해서 완전히 익숙합니다. 아주 편안합니다. 나는 이 새 질서가 조금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 익숙해지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질서이고 훨씬 더 효율적인 질서가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 질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소위 시행착오 과정을 최대한 우리도 줄입시다. 줄여서 새로운 질서에 우리도 익숙하고 국민들도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불안과 혼란을 줄이는 데 우리가 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 새로운 해가 됐습니다.

당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내걸었고 저도 연두에 새로운 목표를 내걸고 이번

취임 2주년 그러니까 2년의 평가와 3년의 계획을 2월 하순되면 또 해야 됩니다. 그래서 2년 평가 3년 계획을 보고할 때 또 국정운영에 관한 좀 더 상세한 계획을 보고드릴 생각입니다만 어떻든 그 내용은 새로운 출발입니다.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, 2003년도 중요한 새로운 출발이었지만 그러나 2005년은 이제 좀 더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추진력 있게 박력 있게 이렇게 한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함께 열심히 합시다. 감사합니다.